

나의 역사는 실전이다.

작성일 : 2010. 03. 24. (수)

작성자 : 이수정 (부산 주믿음교회, 치어)

3월 24일 새벽, 몸이 무겁고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실전이다.”하시며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기록하였습니다.

실체 교육이다.

내 말씀이 말씀이 아니다. 실체이다.

뛰면서 배우는 것이다.

행함 없는 말씀,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행함의 불 받아 말씀이 더 빛나는 것이다.

현지훈련이다.

이론보다 현지훈련이 더 중요하다. 알겠느냐?

부딪히며, 겪으며 배우라.

나의 일을 하며 배워야 깊게 배우고 확실히 배운다.

멈춘 상태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함 속에서 배우라는 것이다.

그것이 크다.

실천교육이다. 실전교육이다.

특급의 훈련과도 같다.

행함 속의 잠언, 깨달음을 얻으라.

네 선생도 그러했다.

행하며 배우라.

바쁜 때이니 더 그러하다. 시간이 없다.

한번 배울 때 즉시, 깊이 배워라.

바로 행동하며 배워라. 강해진다.

듣기만 하는 것보다 몇 배 더 강하다.

섭리는 특공대 현지훈련이다. 특수부대이다.

영계실상이니 그러하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순간이기에 그러하다.

알겠느냐?

실전이다. 실체이다.

그리하는 자, 크다. 알지?

섭리 특공대. 나 예수의 특별부대, 파이팅이다!

너희의 대장된 나 예수.